

집사(일꾼)에 대한 이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지금도 집사는 필요한가?”라고 질문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쉽게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 주시고 세우신 교회에서 “왜 당신을 집사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필요로 한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일꾼 임직투표를 마치고 우리는 교회의 Vision을 새롭게 인식하고 힘을 다해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라 하신 주님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되어야 하겠습니다.

1. 집사란 무엇인가?

1) 집사의 어의(語義)

집사란 헬라어 "디아코노스"(diaknos)로서 종, 사환, 혹은 봉사자란 뜻입니다.

- (1)종 ○눅17:7-10 - 너희중에 뉘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 (2)사환 ○마22:13 -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 (3)섬기는 자 ○막10:43 - 너희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거...
- (4)일꾼 ○살전3:2 - 우리 형제 곧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하고.
- (5)사역자들
 - 고전3:5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믿게한 사역자들..
 - 요12:26 -그리스도의 종,
 - 요2:59 -식사시 시중 드는자, 그외에 청지기, 조타수, 조수...

위의 말들이 뜻하는 바와 같이 집사는 다만 봉사하는 일꾼이며 어떠한 명예나 권세나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2) 집사의 기원

집사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 1절-6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집사라는 명칭이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교회 안에서 수행한 임무를 살펴 볼 때 오늘날 그 기원을 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6절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 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열 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스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 하니라.”

공식 직분 명으로 ‘집사’(διακονος)직이 신약에 등장하는 것은(빌1:1을 제외하고) 목회서신에서입니다. ‘집사’의 희랍어 διακονος 의 본래 의미는 종, 일꾼, 섬기는 자(servant), 조수, 협조자(helper)등입니다. 신약 초기교회에서는 공식 직분으로 ‘집사’가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하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교회의 ‘일곱 봉사자’들은, 비록 그들을 집사라고 부르지는 않았어도, 교회 역사상 최초의 ‘집사’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주요 임무가 사도들을 도와 ‘구제’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집사직분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교회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담당했던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διακονος가 '집사' 직 용어와 관련되어 처음 등장하는 곳은 로마서 16:1에서 바울이 뵤뵤의 호칭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διακονος'가 교회의 '집사'직분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3)

이 단어가 바울의 초기 교회에서 '직분'명으로 나타난 경우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빌립보서 1:1절과 목회서신을 제외하고 어디에도 직분으로 언급된 곳은 없습니다. 한데 바울은 자신을 '사역자' 혹은 '일꾼'이라고 부를 때 때때로 이 'διακονος'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고전 3:5, 고후3:6; 6:4, 11: 23, 골1:23,25, 엡3:7 등)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롬15:8, 갈 2:17)

아볼로(고전 3:5), 두기고(엡6:21), 에바브라(골1:7), 디모데(살전3:2, 딤후4:6) 그리고 심지어 사탄의 사자에게도(고후 11:15), 정부 관리를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썼다.(롬16:1) 따라서 바울이 뵤뵤를 교회의 'diakonos'라고 부른 것은 교회의 공식 직분으로 호칭했다기보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 혹은 '일꾼'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빌1:1에 나타나는 '집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미 말한대로 빌립보서가 쓰여질 연대(약 53-4년경)에는 교회에 아직 '집사'라는 공식 직분이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연대에 쓰여진 바울의 다른 어떤 서신에도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빌립보서에는 '집사'들이 '수신인'으로 등장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는 특별히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성원을 한 교회입니다.(빌4:15-18). 한데 그런 물질적 후원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봉사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업무를 맡은 봉사자를 나중에 공식적 직분으로 '집사'라고 했으므로, 그 임무를 감당했던 봉사자들과 그것을 감독했던 장로들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수신자' 리스트에 특별히 '감독과 집사'를 추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 1:1의 '집사'직 언급은, 후대에 쓰여졌다고 주장되는 목회서신과 비슷한 시기의 어떤 편집자에 의한 편집의 산물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서신에는 좀 발전된 교회 직분제가 나타납니다. 장로와 함께 감독, 집사가 공식 직제명으로 등장됩니다.(딤후 3:8-13) 특히 집사를 선택할 때의 '자격'에 대한 상세한 언급을 한 후, '시험'을 통해서(딤후3:10) 자격자를 골라 임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직제가 제도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빌1:1절에서처럼, '감독' 직분 다음에 '집사'직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도 유의할 일입니다. 이것은 후에 등장하게 되는 교회 위계제도(hierarchy)의 원시적 모형으로 볼수도 있다. 집사들은 '장로-감독'의 직무를 도와서, 혹은 그들의 지도 아래서 구제 등 교회 행정, 관리, 재정에 관계된 일을 맡아 봉사하는 업무를 담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리켜, 신약교회 시대에 이미 교회 내에 상하 위계질서 같은 '계급'적인 직분제도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성직자'제도나 '평신도'라는 개념은 없었다. 누구나 받은 은사에 따라 봉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장로직이나 집사직이 상하적 '계급' 직책이 아니고, 교회 일을 서로 나누어서 수행하던 일종의 '업무분담' 같은 형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집사직을 받은 사람이 어느 일정 기간 지나서 장로가 되는 것 같은(마치 계급이 올라가는것 같은) 제도는 없었습니다.

3) 집사의 유래

오순절 이후 120명의 문도들이 며칠이 못되어 3천명이 되었으며(행4:4), 그 후 계속적인 부흥으로 큰 무리와(행5:14) 더 많은 제자들이 계속 모여들어(행6:1) 예루살렘교회는 만여 명이 넘는 대 교회로 부흥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업무가 과중되어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워 사도의 일을 분담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워 일을 분담하게 된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로 집사들이 성도의 구제를 일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며 동역 하는 귀중한 교훈을 남기며 오늘날까지 오면서 끝임 없이 서로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였습니다.

4) 집사의 집분에 대한 그릇된 이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집사 직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들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1)집사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재정적인 부유함이나 목회자와의 친분으로 인해 명예로 주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2)집사는 교회에서 남보다 높은 권위있는 자에게 주는 권위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3)집사는 목사를 고용하여 부리는 주인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4)집사는 교회의 대표자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5)집사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6)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교회정치에서의 집사

제 1 조 집사직(職)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按手)임직을 받는 교회 향존(恒存)직이다.

제 2 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송(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本分)인즉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후 3:8~13).

제 3 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合力)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收納支出) 한다(행 6:1~3).

제 4 조 집사의 호칭

1. 시무집사 / 본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받아 취임하고 있는 집사
2. 휴직집사 / 본교회에서 집사로 시무하다가 휴직중에 있거나 혹은 사임된 자
3. 은퇴집사 / 연로하여 은퇴한 집사
4. 무임집사 / 타 교회에서 이명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이니, 만70세 미만자는 서리 집사 직을 맡을 수 있고, 본교회에 전입하여 만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없이 시무집사가 된다.

3. 집사의 자격은 무엇인가?

1) 기본적인 자격들

사도행전 6장 3절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 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열 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공궐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1)성령이 충만한 자(행6:3) 어떻게 충만 할 수 있을까?

첫째,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요일4:1-30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둘째, 기도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행1:12-15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일백이십 명이나 되더라”

◎행2:1-4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눅11:13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셋째,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넷째,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성령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5:15-21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 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충만을 받으라!(엡5:18)

(1)명령형-호소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2)현재형-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성령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3)수동형-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주실 때 충만합니다

성령충만의 결과

(1)찬송의 생활(엡5: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감사의 생활(엡5: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3)순종의 생활(엡5: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도행전 16:25-26/ 바울과 실라의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란! 자신을 포기하고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지배하여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2)지혜가 충만한 자(행 6:3)

지혜 충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독하고 깨달아 생활로 옮기는 실천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혜(자연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창조적 원리)가 있습니다.

◎고전 2:6-7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취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떻게 지혜충만 할 수 있을까?

가) 욥 12:13-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 있고"라고 하였습니다.

나) 대상 22:12-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다) 시 111:10- "여호와를 경외함이 큰 지혜의 근본이라"하였습니다.

라) 잠 11:2- "겸손하여 즐겨 지혜를 찾는 자에게 지혜가 있다"하였습니다.

마) 약 1:5, 왕상 3:9-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주신다"하였습니다.

바) 마 24:46,47- "하나님을 위해 쓸때에 지혜를 더하신다"하였습니다.

(3)믿음이 충만한 자(행 6:5)

믿음 충만이란? ◎고전 12:9 -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떻게 믿음 충만 할 수 있는가?

가)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성령안에서 믿음의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다)믿음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 일반적인 자격들...

디모데전서 3장 8-13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1)도덕적인 요건

가)단정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8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나)일구이언(一口二言)하지 않아야 합니다. ◎딤후전 3:8上 -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다)술에 인 박이지 않아야 합니다. ◎딤후전 3:8中 - “술에 인 박이지 아니하고”

라)더러운 이(利)를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딤후전 3:8下 -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2)교리상의 요건

가)복음의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나)자기 교파의 가르침과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3)일신상의 요건

가)참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딤후전3:11 -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나)절제해야 합니다 ◎딤후전3:11中

다)모든 일에 충성스러워야 합니다.◎딤후전3:11下

라)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딤후전3:12 -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마)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딤후전3:12下

4. 집사의 사명과 임무

목사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로 너희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라기 2장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어늘”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1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라”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 하였느니 이는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교회는 목회자를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교체가 가능한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생각한다<폴 스티븐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위하여 따로 구별 받은 자이다. 목회자는 그 중에서 구별된 존재다 <다비다.포이 크라브토리>

실의에 빠진 목사의 모습이 곧 표면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다.

목회자와 제직의 관계 - 부정적인 예화

<필라델피아 관현악단 이야기-지휘자/레오 폴로 스토코프스키의 베토벤 서곡 연주때 있었던 이야기>

이에 따른 교회일꾼(집사)의 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집사의 사명!

◎디도서 1: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가)상속자 ◎창 15:2 -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대리자 ◎창 39:4-5 -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다)보관자 ◎대상 29:14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학 2:8 -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라)봉사자 ◎눅 8:3 -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마)분배자

◎행 4:32 -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행 2:45 -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신실한 청지기가 가져할 4가지 의식

가)정체의식-Who

◎히 3:4 -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시 95:6 -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고전1:2 -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나)책임의식-How

◎마 25:14-30 -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도되.”

다)사명의식-What

◎눅 17:7-10 -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고전 4:2 -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목적의식-Why

◎마 6:33 -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공궤를 일삼는 일

◎사도행전 6장 1-4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供饋)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專務)하리라”

목사님을 공궤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

(1)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지고 생활에 염려하지 않게 섬겨야 합니다.

(2)목사님의 거처를 평안하고 안락하게 지원하여 목양에 전념하게 해야 합니다.

(3)목사님의 활동영역을 넓혀주어 큰 일을 감당하게 기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 합니다.

(4)목사님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자기발전을 위한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도서비 및 교육비, 세미나 참석비)

(5)목사님의 영육간의 쉼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수양회와 여행)

(6)목사님의 노후를 준비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해야합니다.(은퇴연금적립)

집사가 공궤하는 일을 부끄러움 없이 하려면 모든 생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며 마땅히 십일조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집사들의 공궤함의 결과

하나님의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7

2) 목사를 돕는 일

로마서 16장 1-4절 “내가 겐그리아 일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뵤뵤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너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와같이 교회 일꾼된 집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교회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목사)를 보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래의 일들을 마음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 (1)기도로 열심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 (2)필요를 채우며 열심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 (3)부당한 비난에 대해 옹호하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 (4)솔직한 충언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5)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3)설교와 교육시키는 일

◎사도행전 6장 8절-7장 53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4)복음 전하는 일

◎사도행전 8장 5-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5)구제하는 일

◎사도행전 6장 1-2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供饋)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6)예배를 돕는 일

(1)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집례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목회와 교회 부흥은 기도에 달려 있다.

(2)모든 예배순서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예배시간. 예배자세)

- (3)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 (4)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출석해야 합니다
- (5)정성을 다해 십일조와 온전한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 (6)새신자를 반갑게 맞이해야 합니다
- (7)교회 모든 예식에 적극 참여하며 도와야 합니다
- (8)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안내, 중식, 기도, 헌금위원...)
- (9)언제나 강단위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설교할 수 있는 준비.

1. 교회 내에서 집사의 역할

1) 집사의 사명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중심으로 집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1-3절 사이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탈리아 로마 교회에서 고린도로 이주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된 이유는 크레스투스에 의해 정치적으로 로마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그라우디오는 AD 49년에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 칙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후 이들은 18절에서 바울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사의 사명은 첫째로 목사를 돕는 헌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8-16절에는 우리들은 집사의 직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참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멜렉 족속들과 싸울 때,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그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팔을 하나씩 붙들어 그 싸움이 이기도록 도왔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초대교회에서 집사들을 선택한 목적이 바로 사도들의 영적 능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돕는 것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사들의 사명의 최우선적인 것은 바로 목회자의 영적 능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돕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도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 내외는 얼마나 바울을 돕는 삶을 살았는지, 바울은 로마서 16:4절에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목회자로서 자신들을 가리치고, 지도하였던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였고, 그를 위해 다방면으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집사들의 사명은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24-26절 사이에 보면, 아볼로라는 학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초기에 성경에 나타나는 집사들을 보면 모두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에바브로디도 집사, 아굴라 집사, 브리스길라 집사, 베베 집사 등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집사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셋째는 재정관리와 교회 봉사의 사명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집사였던 루디아 집사는 자신의 집을 복음의 확장을 위한 교회로 내놓았고, 빌립보서 4:15-16절에는 “빌립보 사람들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기록하여 바울에게 재정적 후원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25절에는 빌립보 교회의 집사였던 에바브로디도 집사에 대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3절 역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의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23절에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교”라 하여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바울에게 경제적인 생활비를 공급하였던 사람이 가이오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한 형제로서, 함께 수고하는 군사로서 목회자와 교회에 재정적인 물질을 공

급하며, 목회자의 가정을 돌보는 또다른 교회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7 집사를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목회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대신하여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과 구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목회자와 집사와의 관계

데살로니가전서 5:12-13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집사들과 목회자와의 명확한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2b-13a절 사이에서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듯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으로 지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22: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고 했고, 사도행전 20:28절에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여 감독자를 성령께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5: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목사가 교회에 청빙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 말씀들을 근거로하여 우리는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기쁨으로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도록 범사에 물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야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목회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그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Para-church의 영향으로 흔히 말하는 평신도 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교회는 평신도들에 대한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운동은 성경적이지 못한 질서를 낳게 되었습니다.

만인 모두가 제사장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게 되었고, 목사의 권위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편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 고라 자손의 반역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민16장). 그들은 모두 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동일한 레위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에 불만족하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였습니다. 하루에 250명의 제사장이 땅이 갈라져 음부로 떨어지는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생겼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염병을 일으키셨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만 사천 칠백 명이 죽었다(민16:49)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평신도 운동의 단점은 평신도들의 사역의 범위를 확대시켰으나, 문제는 만인 제사장이라 주장하여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3) 교회 안에서의 집사들이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5:13-22절을 통해 교회 안에서 집사들이 행해야 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 1) 너희끼리 화목하라 2) 규모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을 권계하라
- 3)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안위하여 주라 4)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
- 5) 오래 참으라 6) 항상 선을 좇으라(15절) 7) 항상 기뻐하라 8) 쉬지 말고 기도하라
- 9) 범사에 감사하라 10) 성령을 소멸치 말라 11) 예언을 멸시치 말라 12)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13) 악은 모든 모양이라고 버리라

이 13가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개인 신앙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사회 생활에서의 사회적인 활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의 신앙 생활은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바울은 쉬지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의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질서와 바른 교제를 위해서 성도들 간에 화목,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한 권계 그리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며, 붙들어 줄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회 생활에서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항상 선을 좇을 것과 범사에 생각을 깊이 하여 좋은 것을 취할 것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것 등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사들의 역할은 개인적인 신앙의 계속적인 훈련,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화목을 위한 신앙의 모범, 사회적으로는 바른 윤리와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명자로서의 집사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9:4절에는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삶의 긍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는 영적인 탄생입니다. 요한복음 1:12-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사명자로서의 탄생입니다. 이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이 새롭게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과 동시에 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가라는 이유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윗시야의 죽음으로 국내 정세가 악화되고 외세 침략의 위험이 가중되는 민족적인 위기 상황과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 6:8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3: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 말하였고, 10: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줄을 알게 되었고, 출애굽의 역사를 믿음을 통해 감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자로서의 탄생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며, 자녀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 집사 직분의 사명적인 의미

(1)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사명

따라서, 집사의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집사의 직분은 일종의 청지기 직분이기 때문에 먼저는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사명자로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첫째로 자신의 삶을 관리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간, 물질과 재물의 소득을 위한 노동, 문화 활동, 지식 활동 등의 외적이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활동과 함께 가사와 자녀 교육 등의 기본적인 활동 등을 통한 자기 관리와 자기 창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전도서 3:22절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8:3절에는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창조사역과 섭리사역과 관련하여 자연을 보호하며, 모든 물질가치와 상대가치에 반하여 생명가치와 절대가치로서의 인간의 중심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낙태반대, 모든 전쟁의 반대, 자연파괴에 반대하는 적극적인 활동과 가치를 가져야 하며, 생명가치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른 인권 유린의 문제를 반대하며, 부정과 부패에 대해 적극적인 사고와 인식을 사회 활동을 통해 가져야 합니다(암5:14-15, 5:24).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활동이 이루어져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교회 활동 속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 분야를 만들어가고, 그 위치를 확보해가야 하며,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친교를 나눌 필요성이 있습니다(엡4:11-12).

따라서, 우리는 자기 달란트에 대한 긍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19절에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였고, 빌립보서 4: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2) 영적 사명자로서의 책임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으나, 신약시대는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시작하신 주님의 부활의 아침으로서,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약속에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16절에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judge)하지 못하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시대는 율법에 따라 안식을 준수하였다면,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구약의 전통적인 안식일에 대한 정신은 그대로 신약시대에는 주일의 개념에 존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 58:13-14절의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십일조의 신실한 구별과 정성된 헌금입니다. 먼저 헌금의 경우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렵돈의 헌금이 가장 귀한 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누가복음 21:1-4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금은 많은 액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과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9:10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고 하여, 모든 씨의 시작은 하나님이며, 풍성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며, 열매를 더하여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

로 헌금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헌금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며, 감사의 고백이며, 축복의 씨앗이요, 천국의 창고를 채우는 저축인 것입니다(마 6:19-21).

십일조에 대해서는 성경공부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십일조는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십일조는 율법에서 정하기 전부터 아브라함과 야곱이 행하였으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법으로 규정하였고, 예수님도 십일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마 23:23).

성도들이 온전한 십일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첫째로 양식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말 3:10). 둘째는 사업이 흥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말 3:11). 셋째는 십일조를 통해 명예를 얻으며 칭송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말 3:12) 그러나, 온전한 십일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으로서 하나님의 창고를 갈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약속된 십일조를 드리지 않음으로서, 가정이 파괴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위험과 이방 백성들과 전쟁의 위기가 있었으며(창 34:- 35:8), 약속된 십일조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복음 전파와 적극적인 선교 참여 그리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 자체가 성장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초대교회는 역동적으로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의 하나는 첫째로 양적인 성장입니다. 양적 성장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기초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에 충만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사의 직분을 맡은 제직들은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았음이라는 소명 의식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5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7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집사의 책임과 의무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를 기초로 하지 않는 교회는 기둥을 세울 수도 없고, 성장할 수 없으며, 교회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지체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의 직분, 예배위원의 직책, 섬기는 자로서의 직분 등 다양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서 개인, 가정, 민족, 세계를 향한 선교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과 성령 충만의 역동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튼튼히 서서 성령체험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5. 집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의 교회일꾼(집사)의 역할

1)목사와의 관계

(1)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7,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2)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도우라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3)근심을 덜어주라

(4)격려를 아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16-1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2)다른 교회일꾼(집사)와의 관계

(1) 다른 은사로 봉사하는 일꾼을 존경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집사를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이견에도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4) 자신의 말은 사명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5) 어려움 당할 때 협력하여야 합니다.

3)교회와의 관계

(1)교회의 결정과 명령에 순복하라

(2)교회를 사랑하므로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참석하라

(3)교회의 제반 계획에 참여하고 지원(헌금)하라

(4)교회에 대해 무관심한 회원을 격려하고 열심히 회원을 칭찬하라

(5)소수의 의견자들을 포용하고 어떤 결정이든지 최선을 다하라

교회 안에서 일꾼된 제직의 본분

(1)협력자(빌 2:25)- 목회의 조력자,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롬 16:1, 히 13:17, 몬 1:22, 갈 4:14-15)

적대자들(민 12:1-10, 민16:31-33, 삼상 24:5)

(2)교제자(몬 1:6)-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3)헌신자(빌 4:16, 마 22:37-40)

◎마 22:37-40

◎마 28:19-20 - 주님의 지상명령/헌신을 요구합니다)

(4)전도자(행 8:5, 행 1:8)

(5)홍보자(살전 1:8)

교회 안에서 일꾼된 제직이 힘써야 할 일들

(1)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반드시 지킵시다.

◎출 20:10

(2)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드립시다.

◎말 3:8-10

(3)신앙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3장 이상씩 성경을 읽읍시다.

◎딤후 3:16

(4)영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살전 5:17

(5)주님의 지상 명령은 선교입니다. 전력을 다하여 전도합시다.

◎행 1:8

(6)성도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행함으로 증거합시다.

◎사 43:10)

- (7)은혜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 (8)성도의 단결은 화목입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시다.
- (9)성도의 실천은 봉사입니다. 내가 먼저 앞장 섭시다.
- (10)가정은 지상의 천국입니다. 가정예배를 꼭 드립시다.

- ◎살전 5:18
- ◎마 5:43-47
- ◎행 2:44-47
- ◎행 10:2

교회 일꾼된 제직의 신조(GREED)

- (1) 나는 헌신을 기뻐하는 일꾼이다 - Commitment
- (2) 나는 열매를 기대하는 일꾼이다 - Result
- (3) 나는 최선을 경주하는 일꾼이다 - Endeavor
- (4) 나는 지체를 세워주는 일꾼이다 - Equip
- (5) 나는 주님을 사모하는 일꾼이다 - Devotion

베드로전서 4장 7-14절

- (1) 기도 (2) 사랑 (3) 대접 (4) 봉사

능력주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
 시험은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 그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6. 집사의 축복은 무엇인가?

집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일꾼에게 약속된 축복들...

1)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을 얻느니라”고 하였습니다.

2)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고 하였습니다.

3)더 큰 은사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5)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6)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7,43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주인이 이를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